

농촌여성의 생산활동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rm Women's Stress in Productive Activity

목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曹惠晶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梁順美

Dept. of Home management Mokpo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Hea-Joung Cho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RDA

Soon-Mi Y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farm women's stress under productive activity role multiple overload through family characteristic (pattern and number) and characteristic (type, working time, and involvement proportion) of productive activity.

The outline of the study is as follows :

1. Stress by pattern and number of a family is highest in a four generation family and increases according as the number of the family increases.

2. The characteristic of productive activity : 1) Stress based on type of productive activity is highest in Type III of the most multiple overload roles. 2) In light of stress based working time, area of household task activity is in inverse proportion to working time, but area of farming and wage earning activity are approximately in direct proportion to it. The two-way ANOVA analysis show that stress in Type I of area of household task increases, but in Type IV it decreases as working time increases. 3) In stress based on involvement proportion in three activity areas, the more the involvement proportion the less of the stress : an inverse ratio.

I. 서론

한국사회는 지난 30여년간 도시화 및 산업화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여성의 삶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농촌여성의 역할 증가라고 할 수 있다.

1960년 이래 지속되어온 산업화와 자본의 농업지배 결과는 일반적으로 농업생산력의 정체와 농가경제 악화라는 “농업위기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출현하게된 가시적인 양상의 하나는 농가인구와 농가호수의 급격한 감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가족계획 정책에 의한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야기된 현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꾸준히 누적되어온 농촌인구, 특히 청·장년 인구의 이농에 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67년 이전에는 이농률이 0.98%에 머물렀던 것이 70년대 후반의 6.7%를 정점으로 평균 6% 정도를 유지하는 실정이며(농림수산통계연보) 이중 17~31세의 청·장년층이 거의 70% 수준에 이르는 현실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높은 이농률과 농가 수의 감소로 가족구성원의 충족기제가 악화되어 농촌인구는 급격히 “노령화” “여성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농촌가족이 “핵가족론”에서 제시하는 “감정적 연대의 단위”이기 보다는 생산의 영역과 사(私)적 영역이 미분리된 장(場)으로 존재(김홍주, 1992)하고, 농업가족과 비농업가족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농업가족원들 사이에는 가족의 역할과 경제적 역할이 결합 되어있다(Davis-Brown & Salamon, 1987)는 것이다 라는 지적을 감안할 때 농촌가족의 “노령화” “여성화” 현상은 곧 농업노동의 “노령화” “여성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주부의 농업노동 투하량이 1967년에는 28% 이던것이 75년에는 33.3%로, 93년에는 47.7%로 점차 증가(농촌진흥청, 1995)하는 추세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현실에 대해 전정숙(1994)은 농가주부의 전체 노동시간은 과중(overload)한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업위기에 대한 농민의 반응은 “가족”이라는 생산의 기본단위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의 다양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꾀

한다(Deere, 1987 ; 김홍주, 1992, 재인용)는 지적처럼 과거보다 현재의 농촌여성들은 “농업위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농한기나 기타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 임금활동(취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가사활동에 더하여 취업활동까지 병행하는 것을 구혜령(1991)은 다중역할(multiple role)이라고 했으며, Walker와 Walker(1987)는 농업활동에 더하여 농업외의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이 농업외의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농업인에 비하여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여성의 생산활동역할 수행범위를 가사활동영역·농업활동영역·임금활동영역으로 나누고 이들 영역중 어떤 영역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생산활동유형을 구분하여, 생산활동역할의 과다정도에 따른 스트레스를 가족특성(형태, 수)·생산활동특성(유형, 시간, 개입정도)으로 분석함으로써,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코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및 관련연구 고찰

1.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의 “Stringer”로써 “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McGrath(1978)는 스트레스를 환경의 요구가 지나쳐서 개인능력의 한계를 벗어날때 발생하는 개인과 환경의 불균형·부적합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Lazarus와 Folkman(1984)은 개인의 자원이 모자라서 자신의 안녕이 위협하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스트레스로 보고 개인의 내외적인 요구가 이 요구를 다룰 적응자원보다 크다고 판단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Walker와 Walker(1987)는 스트레스는 환경적 요구의 평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반응으로써 주어진 사건에 대한 평가와 적절한 대처방안의 결핍으로 인한 개인적 반응의 과정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원(stressor)은 환경적 요구와 이러한 요구에 접하는 개인 또는 가족원의 능력사이에서 느껴지는 불균형 상태의 원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stress)는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인한 적응 요구가 개인 또는 가족자원에 크게 부담을 줄 때 일어나는 긴장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Walker와 Walker(1987b)는 농업인들의 주요한 스트레스원으로 경제적요인, 작업량과다, 가족내의 상호관계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농업인의 89%가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작업과중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중 여성 농업인들의 주요 스트레스원으로는 재정적여려, 시간압박, 친척들과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에 있어서의 문제, 배우자와 지내는 시간의 부족, 친구의 죽음, 농업상황에 대한 대중매체의 왜곡, 작업량 과다를 들고 있다.

2. 생산활동

생산이란 인간의 효용을 창출하는 모든 행위로서(Fitzsimmons와 Williams, 1973), 이에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생산활동이라고 한다. Beutler와 Owen(1980)은 생산활동모델(A 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에서 생산활동을 가정생산활동과 시장생산활동으로 구분하였다. 1988년에 Beutler, Owen과 Hefferan은 이전에 발표한 생산활동모델을 좀 더 발전시켜 생산활동을 가정의 인접 및 공동활동·가계활동·시장 및 정부활동영역으로 나누어 가정 생산활동과 다른 생산활동과의 관계를 동일수준에서 다룸으로써 가정생산활동의 생산활동으로서의 의미를 부각시켰으며, 문숙재(1990)는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정관리 행동도 가정생산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이기영(1995)은 Beutler와 그의 동료들(1988)이 제시한 모형에서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차이를 노동에 의해 충족되는 욕구의 위계차이로 설명하면서 시장노동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등 하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면에 가사노동은 사랑, 자아존중, 자아실현 등 상위의 욕구를 충족 시킨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생산

활동영역을 가사활동·농업활동·임금활동 영역으로 나누고 농촌여성들이 어떤 영역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생산활동 유형을 구분하였다.

3.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가족 관련변수

Heck(1983)는 가족수가 많은 확대가족은 자원은 적고 요구와 스트레스는 증가하므로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두경자(1990)의 연구에서도 가족수가 많을수록 관리요구도가 많아져서 주부 개인의 자유시간이 적어지므로 관리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형태의 복잡성과 가족수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생산활동 관련변수

1) 생산활동유형

농업활동에 더하여 농업외의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이 농업외의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농업인에 비하여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낸다는 Walker와 Walker(1987)의 지적이나, 시간과 에너지는 희소하기 때문에 다중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역할갈등을 겪게 된다(Moor, 1963 ; Marks, 1977, 재인용), 개인이 자신에게 규정되어 있다고 믿는 활동이 많을수록 또한 역할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느낄수록 역할긴장은 커진다(Burr, 1979), 그리고 농촌여성의 역할과다가 총체적인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김홍주, 1992)는 여러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생산활동역할 수행의 정도가 다중(multiple)한 생산활동유형일수록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생산활동시간

Chung(1988)은 취업주부의 경우 다양한 역할수행으로 인한 시간요구 때문에 심각한 시간 제약을 지각하고 있다고 했다. 조희금(1986)은 농사일에 종사하는 시간이 농가주부가 인지하는 삶의 질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번기에 하루 9시간 이상 농사일을 한다고 응답한 주부들이 그보다 작업시간이 적은 주부들에 비해 자신의 삶을 낮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한편 Keith와 Schafer(1980)는 근무시간이 길수록 역할갈등이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생산활동시간, 즉 역할과중(role overload) 정도와 스트레스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 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3) 생산활동 개입정도

생산활동에서 어느 정도 중심적 부분을 차지하는지이며, 어떤 심리적 자세로 참여하느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Cooney, Pedersen, Indelicato 및 Palkovitz(1993)가 측정값의 상대적 수준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유형화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생산활동 개입정도를 가사활동영역에서는 의사결정형태·남편에게 가사일에 대한 도움요청 여부·생활비 관리권에 대해, 농업활동영역에서는 의사결정형태·농사일 전담권자·농기계 작동정도에 대해, 임금활동영역에서는 참여동기·활동장소·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중심적위치 점유정도나 참여정도로 구분하였다.

김혜숙(1982)은 부부간의 갈등이 심할수록 부인의 결정권이 낮아지고, 갈등이 없을수록 부인의 결정권이 높다고 하였다. 한경혜와 장미나(1993)는 주부가 주로 결정하거나 부부 공동으로 결정하는 주부참여형의 의사결정형태를 갖는 주부집단이 주로 남편이나 시부모 또는 자녀가 의사결정을 하는 주부불참여형의 의사결정형태를 갖는 주부들 보다 삶의 질을 더 높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생활비 관리권도 의사결정형태에서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여러 선행연구(구혜령, 1991; 임정빈과 정혜정, 1986; 김수복과 김득성, 1994)에서는 취업동기가 역할갈등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경제적인 이유에서 취업이 이루어졌을 때 역할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Voydanoff와 Kelly(1984)는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 만족할수록 역할갈등을 적게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구혜령(1991)은 자신의 직무에 만족할수록 긴장갈등을 덜 경험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산활동 개입도와 스트레스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생산활동에서 중심적 부분을 차지하거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농촌여성의 생산활동역할 과다정도에 따른 스트레스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족특성(가족형태, 가족수)에 따라 농촌여성의 가사·농업·임금활동영역의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생산활동특성에 따라 농촌여성의 가사·농업·임금활동영역의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 생산활동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 생산활동 시간에 따라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 생산활동 개입정도에 따라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2.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산활동과 생산활동영역

생산활동이란 인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로서, 농촌여성들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가사활동·농업활동·임금활동영역 세부분으로 구분하였다.

(2) 생산활동유형

어떤 생산활동영역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생산활동

영역이 조합되는 패턴으로, 생산활동 역할의 다중정도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4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I 유형 : 가사활동에만 참여하는 여성
- II 유형 : 가사활동과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 III 유형 : 가사활동과 농업활동 그리고 임금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 IV 유형 : 가사활동과 임금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3) 생산활동시간

생산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여하느냐는 것으로써, 생산활동역할의 과중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4) 생산활동 개입정도

생산활동에서 어느 정도 중심적 부분을 차지하느냐이며, 어떤 자세로 참여하느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생산활동에서 중심적위치 점유정도나 참여정도가 높거나 적극적인일수록 생산활동 개입정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3. 조사도구 작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7문항, 생산활동 관련 사항을 측정하는 12문항, 그리고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34문항 등 총 5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34문항중 가사활동영역은 14문항, 농업활동영역은 11문항, 임금활동영역은 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질문은 Weigel과 Weigel (1987)의 척도 및 국내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며, 3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생활상에서 각 스트레스 문항에 대해 짜증, 심각함, 절박감, 부담감을 자주 경험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스트레스에 관한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생산활동 개입정도는 각 생산활동영역에서 중심적 위치 점유정도나 참여정도가 높거나 적극적인일수록

높은 점수를 배점하여 총점이 3-5인 집단을 생산활동 개입정도가 하위인 집단으로, 6-7인 집단을 생산활동 개입정도가 중위인 집단으로, 8-10인 집단을 생산활동 개입정도가 상위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남편이 있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46명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95년 6월 10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전국 8개도 60개 시·군의 480명을 해당 시·군의 생활지도사들이 설문지를 이용해 면접조사 하였으며, 회수된 480 부중에 불충분한 응답과 미응답이 많은 10부를 제외하고 총 47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문제의 검증에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T검증, 일원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생산활동유형에 따른 활동시간

생산활동유형에 따른 활동시간은 <표 2>와 같다. 1일 총 활동시간은 가사활동에만 참여하는 I 유형이 7.05시간, 가사와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II 유형이 11.55시간, 가사와 농업 및 임금활동에 참여하는 III 유형이 12.31시간, 가사와 임금활동에 참여하는 IV 유형이 10.10 시간으로써 III유형이 가장 많은 시간을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III유형을 역할이 가장 다중(multiple)함과 동시에 과중(overload)한 유형 즉, 가장 역할과다한 유형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470)*

변 수	집 단	N (%)	변 수	집 단	N (%)	
가족 형태	부부+자녀	243 (52.0)	연령	30세 이하	42 (9.0)	
	부모+부부+자녀	175 (37.5)		31~35세	97 (20.7)	
	부모+부부+자녀 +시형제	18 (3.9)		36~40세	118 (25.2)	
	조부모+부모 +부부+자녀	6 (1.3)		41~45세	107 (22.9)	
	기 타	25 (5.4)		46~50세	57 (12.2)	
				51세 이상	47 (10.0)	
가족수	3인 이하	58 (12.4)	학력	국졸이하	82 (17.4)	
	4인	154 (32.9)		중졸	173 (36.8)	
	5인	133 (28.4)		고졸	190 (40.4)	
	6인	86 (18.4)		전문대졸	21 (4.5)	
	7인 이상	37 (7.9)		무응답	4 (0.9)	
가족내 위치	부 부 세 대	459 (97.7)	종교	없음	170 (36.1)	
	부 모 세 대	11 (2.3)		기독교	87 (18.6)	
생활비 관리자	주 부	321 (68.3)		생활 수준	불교	178 (38.0)
	남 편	104 (22.1)			천주교	29 (6.2)
	부 부 공 동	24 (5.1)			기타	5 (1.1)
	시 부 모	21 (4.5)	영농 형태		아주 잘산다	14 (3.0)
	남편에 대한 가사일 협조 요청 여부	안 한 다			297 (63.3)	시설원예
당연한 내 일이므로		129 (27.5)		미역	169 (39.0)	
남성의 일이 아님		68 (14.5)		축산	65 (15.0)	
반응이 없어서		57 (12.2)		과수	45 (10.4)	
시부모를 의식		33 (7.0)	기타(복합농 등)	86 (19.9)		
기 타	10 (2.1)	농기계 작동 정도	안 한 다	176 (69.0)		
한 다	172 (36.7)		부분적으로 한다	64 (25.1)		
도와준다 거절한다	148 (31.6) 24 (5.1)		다한다	15 (5.9)		
임금 활동 만족도	만 족	62 (26.5)	임금 활동 참여 동기	경제적 이유	132 (56.4)	
	보 통	102 (43.5)		내 일을 갖고 싶어서	60 (25.6)	
임금 활동 장소	불 만	70 (30.0)	가사활동영역	농한기에 소일거리 가 없어서	22 (9.4)	
	가 내	65 (28.1)		기 타	20 (8.5)	
의사 결정 형태	가 외	166 (71.9)	가사활동영역	농업활동영역		
	일 전담자	주 부 남 편 부 부 공 동 시 부 모 기 타	11 (2.3)	10 (3.9)		
			427 (91.0)	207 (80.9)		
			16 (3.4)	12 (4.7)		
15 (3.2)			27 (10.5)			
일 전담자	주 부 남 편 부 부 공 동 시 부 모 기 타	430 (94.3)	23 (9.0)			
		5 (1.1)	190 (74.2)			
		6 (1.3)	17 (6.6)			
		15 (3.3)	16 (6.3)			
		-	10 (3.9)			

* 결측치로 인해 각 변수별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표 2〉 생산활동유형에 따른 활동시간

유형 영역	I (가사)		II (가사+농업)		III (가사+농업+임금)		IV (가사+임금)		계	
	n	M(h)	n	M(h)	n	M(h)	n	M(h)	N	M
가사	106	7.05	119	5.10	121	4.37	96	4.28	442	5.19
농업			118	6.45	117	4.07			235	5.26
임금					113	3.47	93	5.42	206	4.45
					(173일)		(258일)			
계	109	7.05	127	11.55	129	12.31	105	10.10	470	

주) 임금활동시간은 연간 활동일수를 조사하여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3. 스트레스 분석

(1) 가족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가족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표 3〉과 같다. 가족 형태에 따른 가사·농업·임금활동영역의 스트레스

는 세영역 모두 조부모+부모+부부+자녀로 구성된 4세대 가족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단이 일상생활에서 노인과 의 조화 및 일치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가족수에 따른 가사와 임금활동 영

〈표 3〉 가족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영역	가족 형태			가족 수		
	집단	M	F값	집단	M	F값
가사	1	24.64 (1.76)	6.59***	-3 명	23.91 (1.71)	5.89***
	2	26.31 (1.88)		4 명	24.82 (1.77)	
	3	25.83 (1.85)		5 명	25.38 (1.81)	
	4	27.83 (1.99)		6 명-	26.55 (1.90)	
	5	24.00 (1.71)				
농업	1	21.72 (1.98)	1.51	-3 명	21.30 (1.94)	0.69
	2	22.51 (2.05)		4 명	22.15 (2.01)	
	3	21.50 (1.96)		5 명	22.21 (2.02)	
	4	24.50 (2.23)		6 명-	21.86 (1.99)	
	5	21.36 (1.94)				
임금	1	15.01 (1.67)	0.75	-3 명	14.94 (1.66)	1.25
	2	15.01 (1.67)		4 명	14.57 (1.62)	
	3	16.60 (1.84)		5 명	15.36 (1.71)	
	4	17.00 (1.89)		6 명-	15.46 (1.72)	
	5	15.11 (1.68)				

*** p<.001

주) 1. 부부+자녀 2. 부모+부부+자녀 3. 부모+부부+자녀 +시형제 4. 조부모+부모+부부+자녀 5. 기타

역에서의 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며, 이는 가족수가 많은 확대가족은 자원은 적고 요구와 스트레스는 증가해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Heck, 1983 ; 두경자, 1990)와 동일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형태나 가족수에 따른 스트레스는 가사활동영역에서만 유의(p < .001)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생산활동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1) 생산활동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생산활동유형에 따른 스트레스는 <표 4>와 같다. 가사·농업활동영역의 스트레스는 가사와 농업 그리고 임금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활동역할이 가장 과다한 III유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가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과중한 농업활동시간을 갖는 II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활동영역에서의 스트레스도 가사와 임금활동에 참여하는 IV유형보다는 III유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활동유형에 따른 스트레스는 생산활동역할이 다중하고 농업활동과의 연관성이 높은 생산활동유형일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농업활동에 더하여 농업외의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이 농업외의 활동을 수행하지않는 농업인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

<표 4> 생산활동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영역	유형	M	F(T)값
가사 (N=470)	I	23.63 (1.69)	10.48***
	II	26.01 (1.86)	
	III	26.02 (1.86)	
	IV	25.38 (1.81)	
농업 (N=256)	II	22.01 (2.00)	-.16
	III	22.07 (2.01)	
임금 (N=234)	III	15.14 (1.68)	0.55
	IV	14.95 (1.66)	

*** p<.001

- 주) I: 가사활동 II: 가사+농업활동
- III: 가사+농업+임금활동
- IV: 가사+임금활동

낸다는 Walker와 Walker(1987)의 연구나 다중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역할갈등이나 역할긴장이 커진다는 선행연구(Moor, 1963 ; Burr, 197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생산활동유형에 따른 스트레스는 가사활동영역에서만 유의(p < .001)한 차이를 나타냈다.

2) 생산활동시간에 따른 스트레스

생산활동시간에 따른 스트레스는 <표 5>와 같다.

<표 5> 생산활동시간에 따른 스트레스

영역	시간	N	M	F값
가사 (시간/일)	-2	17	26.12 (1.87)	0.47
	3-4	171	25.42 (1.82)	
	5-6	152	25.32 (1.81)	
	7-	102	24.63 (1.76)	
농업 (시간/일)	-2	43	20.42 (1.86)	3.15**
	3-4	62	22.42 (2.04)	
	5-6	47	21.88 (1.99)	
	7-8	41	22.28 (2.03)	
	9-	42	22.63 (2.06)	
임금 (일/년)	-100	57	15.04 (1.67)	0.93
	101-200	35	14.34 (1.59)	
	201-300	91	15.10 (1.68)	
	301-	23	15.30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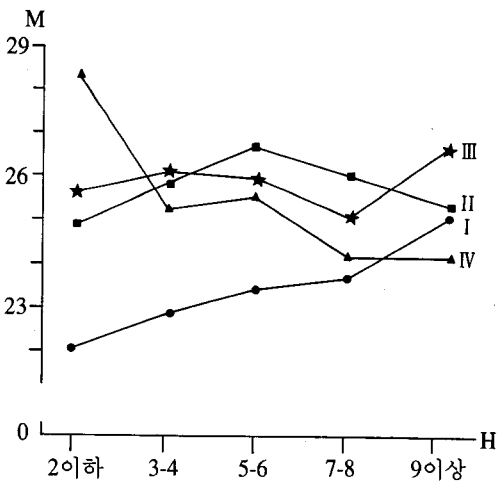
** p<.01

가사활동영역에서의 스트레스는 활동시간이 2시간인 집단이 가장 높았고 7시간 이상인 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활동시간이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농업활동영역에서의 스트레스는 활동시간이 2시간 이하인 집단이 가장 낮았고 9시간 이상인 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3-4시간 집단의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활동시간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와같은 가사활동영역과 농업활동영역의 역현상은 농업활동이 가사활동보다 중요도가 더 높아서 가사활동보다는 농업활동에 활동시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게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이에따라 가사활동에 대해 시간제약을 느끼게 되어 가

사활동이 감소할수록 가사활동영역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반면에 농업활동영역에서는 농업활동 시간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사료된다. 이는 농업시간이 길거나 근무시간이 길수록 역할갈등이 증가하고 삶을 낮게 인지한다는 선행연구(조희금, 1986 ; Keith와 Schafer, 1980) 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생산활동시간에 따른 스트레스는 농업활동영역에서만 유의(p < .01)한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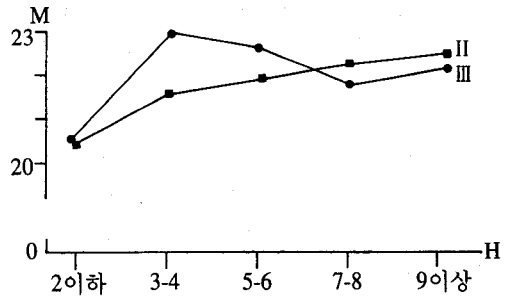
3) 생산활동시간과 생산활동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그림 1, 2, 3> <표 6>은 생산활동시간과 생산활동유형에 따라 이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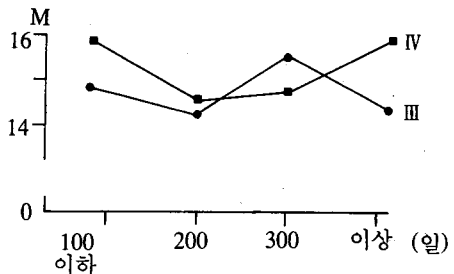
<그림 1> 생산활동유형과 시간에 따른 가사활동영역의 스트레스

가사활동영역에서, 가사활동에만 참여함에 따라 가장 많은 가사활동시간을 갖는 I 유형은 활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반면에 가사활동과 임금활동에 참여하는 IV 유형은 활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취업주부의 경우 다양한 역할수행으로 인한 시간요구 때문에 심각한 시간제약을 지각한다는 Chung(1988)의 지적처럼 임금활동으로 인해 가사활동에서 시간제약을 많이 느끼게 되는 IV 유형은 가사



<그림 2> 생산활동유형과 시간에 따른 농업활동영역의 스트레스



<그림 3> 생산활동유형과 시간에 따른 임금활동영역의 스트레스

<표 6> 생산활동시간과 생산활동유형에 따른 이원변량분석

영역	변량원	평균자승합	F 값
영역 (N=442)	A(활동시간)	6.90	0.50
	B(생산활동유형)	105.39	7.66***
	A × B	11.04	0.80
농업 (N=234)	A(활동시간)	29.79	3.20**
	B(생산활동유형)	4.90	0.51
	A × B	3.13	0.34
임금 (N=206)	A(활동시간)	6.00	0.93
	B(생산활동유형)	0.12	0.01
	A × B	9.31	1.44

** p<.01 *** p<.001

활동시간이 감소할수록 가사활동영역에서의 스트레

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업활동영역에서, 가장 많은 농업활동시간을 갖는 II 유형은 활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했다. 한편 가사활동영역에서 II·III 유형, 농업활동영역에서 III 유형, 임금활동영역에서 III·IV 유형의 스트레스는 굴곡점을 기점으로 증감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되어 활동영역별로 상호작용중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활동영역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아울러 굴곡점을 기점으로 각 영역별 한계활동 시간을 제시해줌으로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효율적인 시간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사활동영역의 스트레스는 생산활동유형에 따라 차이($p < .001$)가 있고, 농업활동영역의 스트레스는 생산활동시간에 따라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생산활동 개입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생산활동 개입정도에 따른 스트레스는 <표 7>과 같다. 가사·농업·임금활동 세영역 모두에서 생산

<표 7> 생산활동개입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활동영역	개입정도	M	F값
가사	상	24.37 (1.74)	16.21***
	중	25.11 (1.79)	
	하	27.23 (1.95)	
농업	상	21.64 (1.97)	0.24
	중	21.93 (2.00)	
	하	22.15 (2.01)	
임금	상	14.00 (1.56)	9.55***
	중	14.89 (1.65)	
	하	15.99 (1.78)	

*** $p < .001$

활동 개입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즉 생산활동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졌으며 반면에 생산활동 개입정도가

낮은 집단 일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이는 의사결정에서 주부 참여형이 주부 불참여형보다 스트레스가 더 낮다는 선행연구(한경혜와 장미나, 1993; 김혜숙, 1982)나,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이 이루어졌을 때 역할갈등이 높다는 선행연구(구혜령, 1991; 임정빈과 정혜정, 1986; 김수복과 김득성, 1994) 및 자신이 종사하는 직무에 만족할수록 역할갈등이나 역할긴장을 덜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Voydanoff & Kelly, 1984; 구혜령, 199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생산활동 개입정도에 따른 스트레스는 가사활동영역과 임금활동영역에서 유의($p < .001$)한 차이를 나타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촌여성의 스트레스를 가족특성(형태, 수), 생산활동특성(유형, 시간, 개입정도)으로 파악하여 생산활동수행에 따른 역할과다 정도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코자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활동유형은 농촌여성이 가사·농업·임금활동영역중 어디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사활동에만 참여하는 유형(I), 가사와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유형(II), 가사와 농업 그리고 임금활동에 참여하는 유형(III), 가사와 임금활동에 참여하는 유형(IV)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가사와 농업 그리고 임금활동에 참여하는 III 유형은 가장 많은 활동영역에 참여함과 동시에 활동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장 역할과다한 유형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둘째, 가족형태에 따른 스트레스는 조부모+부모+부부+자녀로 구성된 4세대 가족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가족수에 따른 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가족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셋째, 생산활동유형에 따른 가사·농업·임금활동영역의 스트레스는 세영역 모두에서 가장 역할과다한 III 유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할이 과다한 생산활동 유형일수록, 또한 농업활동과

의 연루성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생산활동시간에 따른 가사활동영역의 스트레스는 활동시간이 적을수록 더 높았으며, 농업활동영역의 스트레스는 활동시간이 9시간 이상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생산활동유형과 생산활동시간에 따른(이원변량분석) 가사활동영역의 스트레스중에 가사활동에만 참여하는 I 유형은 가사활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반면에 가사와 임금활동에 참여하는 IV 유형은 활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V 유형이 임금활동으로 인해 가사활동에 대해 시간제약을 느끼게 되고, 이에따라 가사활동영역의 활동시간이 감소할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반면에 활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업활동영역에서, 가사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과중한 농업활동시간을 갖는 II 유형의 스트레스는 농업활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활동영역의 스트레스는 생산활동유형에 따라 차이($p < .001$)가 있고, 농업활동영역의 스트레스는 생산활동시간에 따라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생산활동 개입정도에 따른 스트레스는 가사·농업·임금활동 세영역 모두에서 개입정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감소하는 반면에 개입정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가사·임금활동영역에서 유의($p < .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생산활동에 따른 역할과다의 정도를 가족특성, 생산활동특성으로 구분하여 그에따른 스트레스를 분석하였을때 대체적으로 역할이 과다할수록 스트레스는 높아지지만, 생산활동영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생산활동 개입정도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는 낮아졌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방안으로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태도와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엇보다도 농촌여성들 스스로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평등한 성

역할 의식을 함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응답자의 42%가 “가사일은 당연히 내가 할 일이거나, 남성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가사일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결과에서 성역할에 대한 농촌여성 의식의 현 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가 농촌여성들의 역할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됨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는 남편의 적절한 지원을 유도하는 식의 농촌여성들의 개인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개발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한편 농촌여성의 역할과다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의 방안으로는 농촌여성의 농기계 이용을 증대를 통해 농업노동을 경감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기계를 사용할 줄 아는 농업참여여성이 0.6%(권영자와, 1987)에 지나지 않던것이 본 연구결과 31%로 증가하긴 했으나, 여성의 농업담당자로서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커질것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교육의 확대를 포함하여 다각적인 차원에서 농촌여성의 농기계 이용 증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농촌여성의 생산활동역할 과다정도에 따라 스트레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려 했다는 점과, 농촌여성을 대상으로한 국내 최초의 스트레스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1)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수복·김득성(1994).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용이 역할갈등에 미치는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3), 121-134.
- 3) 김홍주(1992). 현 단계 농업노동의 실태와 농민의 가족문제. 한국농촌사회학회지 제2집, 85-144.
- 4) 김혜숙(1982).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I) ; 제주도 농·어촌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 20(3), 65-83.
- 5) 농림수산부 각년도 농림수산물통계연보.
 - 6) 농촌진흥청(1995). '95 생활개선 업무협의회 자료.
 - 7) 두경자(1990). 가정관리체계 모형의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8) 문숙재(1990). 가정생산 ; 가정노동의 생산성과 평가를 위한 접근. 서울 : 신광출판사.
 - 9) 이기영(1995). 가사노동의 가치와 관리. 농촌생활과학지 16(3), 45-48.
 - 10) 임정빈 · 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4.
 - 11) 전정숙(1994). 농업 유형별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조희금(1986). 농촌주부가 인지한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 1권, 29-43.
 - 13) 한경혜 · 장미나(1993). 농가주부의 의사결정 참여, 역할분담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4(1), 45-56.
 - 14) Beutler, I. F. & Owen, A. J. (1980). A 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9(1), 16-26.
 - 15) Beutler, I. F., Owen, A. J. & Hefferan, C. (1988). The boundary question household production : A systems model approach.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6(4), 267-278.
 - 16) Burr, W. R., Nye, F. I. & Reiss, I.L. (1979).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I, The Free Press.
 - 17) Chung, Y. L. (1988). Family time management strategies : Relationships to perceived time conflicts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thesis. Iowa State Univ.
 - 18) Cooney, T. M., Pedersen, F. A., Indelicato, S. & Palkovitz, R. (1993). Timing of fatherhood : Is on-time optima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05-215.
 - 19) Davis-Brown, K., Salamon, S. & Surra, C. (1987). Economic and social factors in mate selection : An ethnographic analysis of an agricultural commun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41-55.
 - 20) Fitzsimmons, C. & Williams, F. (1973). The family economy : Nature and management of resources. Ann Arbor : Edword Brothers.
 - 21) Heck, R. K. Z. (1983).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Cornell Univ.
 - 22) Keith, P. M. & Schafer, R. P. (1980). Role strain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Family Relation 29, 483-488.
 - 23)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
 - 24) McGrath, J. E. (1978). Stres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 ed., Dunnette, M.p., Handbgo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 psychology. Chicago.
 - 25) Marks, S. R. (1977). Multiple roles and role strain : Some notes on human energy, Time and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921-936.
 - 26) Voydanoff, P. & Kelly, R. F. (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s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881-892.
 - 27) Walker, L. S. & Walker, J. L. (1987). Stressor and symptoms predictive of distress in famers. Family Relation 36(Oct.), 374-378.
 - 28) Walker, L. J. S. & Walker, J. L. (1987b). Individual differences in occupational stress and stress symptoms among farmers.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application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Winnipeg, Manitoba.
 - 29) Weigel, R. R. & Weigel, D. J. (1987). Identifying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in two-generation farm families. Family Relation 36(Oct.), 379-384.